

이종석 통일도사의 외교안보라인 전원 교체 김승규 국정원장도 바뀔듯

윤광웅 국방장관에 이어 이종석 통일부장관이 사의를 표명했다. 노무현 대통령은 이종석, 윤광웅 장관의 사의를 모두 수용할 방침을 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는 내달 초 정부 외교안보팀 각료 직원을 교체하는 전면적인 개편 인사를 단행하기로 했다. <관련기사 4면>

이에 따라 차기 유엔 사무총장으로 임명된 반기문 외교장관의 후임으로 송민순 청와대 안보실장이 발탁될 경우 정부 외교안보팀의 주요 포스트인 외교, 국방, 통일부장관과 청와대 안보실장이 모두 교체된다. 아직은 유동적이지만 김승규 국정원장도 함께 교체될 가능성이 높다.

참여정부 들어 외교안보라인의 부분적 개편은 있었지만 이처럼 외교안보팀 전원이 동시에 바뀌는 것은 처음으로, 북핵 실현과 맞물린 이번 개편이 향후 대북포용정책 등 정부 외교안보정책의 기조 변화로 연결될지 주목된다.

이종석 통일부장관은 24일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과 오찬을 함께 한 자리에서 "물러나 학계로 돌아가겠다"는 뜻을 전달했고, 이날 오전 이병완 청와대 비서실장을 통해 공식적으로 사의를 표명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정치공세가 상당히 강해서 장관들이 원만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다"라고 말해 이 장관 사의 수용이 대북정책 실패에 따른 문책이 아님을 분명히 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윤광웅, 이종석 통일장관이 외교안보라인의 다른 직책을 맡을 가능성에 대해서는 "이종석 장관은 '학교로 돌아가고 싶다'고 했고, 윤광웅 장관은 '쉬고 싶다'는 뜻을 전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후원학원 장학50% 학사간담회
남부대학교
www.nmbu.ac.kr
새롭게 일어나는 대학
진남과학대학
www.chunam.ac.kr

10·25 재보선 민주 텃밭 이상기류

해남·진도 국회의원 채일병(민주) 화순군수 전완준(무소속) 당선

신안군수 무소속 유력

10·25 전남지역 재·보궐선거 결과 해남·진도 국회의원에는 민주당 채일병 후보, 화순군수에는 무소속 전완준 후보가 당선됐다. 신안군수 선거에서도 무소속 후보의 당선이 유력 시되고 있어 '호남 맹주'를 자처하며 3곳 전승을 공언해왔던 민주당 지지도에 이상기류가 확인됐다.

집권 여당인 열린우리당은 두 곳의 국회의원 선거에서 완패해 지도부 개편론과 더불어 정계 개편 후폭풍에 휩싸일 것으로 전망된다. <관련기사 3면>

해남·진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는 민주당 채일병 후보가 62.5% (2만 4천423표)를 얻어 29.3% (1만1천423표)에 그친 열린우리당 박양수 후보를 눌렀다. 한나라당 설철호 후보는 8.2% (3천206표)를 기록했다.

화순군수 보궐선거에선 무소속 전완준 후보가 55.4% (1만5천901표)를 얻어 민주당 정완기 후보(39.4%·1만 1천332표)를 4천500여표 차로 따돌리고 당선됐다.

신안군수 재선거에서는 이날 밤 11시30분 현재(43.3% 개표) 무소속 박우량 후보가 36.7% (4천66표)를 획득, 민주당 최영수(29.0%·3천209표) 후보를 850여표 차로 앞서고 있다. 인천 남동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채일병 당선자 전완준 당선자



10·25 재·보궐선거 화순군수 선거 개표소인 화순군민회관에서 25일 밤 개표 종사원들이 유권자들의 표를 환표환표 신중히 개표하고 있다. /4명주기자 mjna@kwangju.co.kr

서는 한나라당 이원복 후보가 57.7%를 얻어 18.5%에 그친 민노당 배진교 후보를 제쳤고, 경남 창원군수 선거에선 무소속 하종근 후보가 61.6%를 득표해 38.4%를 얻은 한나라당 이재환 후보를 여유있게 따돌리고 당선됐다.

민주당은 화순군수 선거에서 패배해 지난해부터 이어온 상승세가 꺾이게 됐으며 '공천 실패'에 따른 지도부 책임론이 제기될 가능성도 높아졌다. 전남지역 3곳의 투표율은 평균 48.4%로 잠정 집계됐다. 선거구별로는 해남·진도 40.5%, 화순 51.6%, 신안 63.5% 등이었다. 전국 9개 지역 재·보선 평균 투표율은 34.1%로 집계돼 지난 7월26일 재·보선 당시 24.8%보다 9.3%포인트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선관위 관계자는 "재·보선 지역이 적극적 투표의사들이 두터운 농촌지역에 많이 몰려있는데다 일부 지역에서 후보간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면서 상대적으로 투표율을 끌어올린 것 같다"고 말했다.

■후보자별 득표수

후보자	득표수(율)
안순일	1,892(62.2%)
윤영월	1,148(37.8%)



정책기획력과 통찰력이 뛰어난데다 청렴성과 진화력까지 두루 갖춰 위기의 광주교육계를 조화와 융화로 이끌

광주시교육감에 안순일씨

득표율 62%...초등 출신이론 처음

민선 4대 광주시교육감에 안순일(61·광주동부교육장) 후보가 당선됐다. 지난 1986년 광주시교육청이 전남도교육청으로부터 분리된 이후 초등 출신 교육감이 탄생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관련기사 3면>

결과, 안순일 후보가 총 유효투표수 3천40표 중 62.2%인 1천892표를 얻어 1천148표(37.8%)를 획득한 데 그친 윤영월(·55·광주서부교육장) 후보를 744표 차이로 물리치고 당선됐다. 안 후보는 지난 23일 1차 투표에서 44.5%를 획득해 1위를 차지했지만,

어갈 적임자로 교육계 안팎의 두터운 신임을 받아왔다.

특히 평교사를 시작으로 교감, 교장, 장학사, 장학관, 초등교육과장, 교육장 등 고직 전반을 두루 경험했으며, 비리나 위안 등으로 구설수에 오른 적이 없는 점도 장점으로 꼽힌다.

안 당선자는 다음달 7일 취임해 오는 2010년 11월 6일까지 교육감직을 수행하게 된다. /황태중기자 hwangtae@

최규하 前대통령 오늘 국민장 엄수

정부는 26일 오전 10시 서울 경복궁 앞뜰에서 국민장(國民葬)으로 최규하 전 대통령의 영결식을 치른다. <관련기사 6면>

이용섭 행정자치부 장관은 최 전 대통령 빈소가 마련된 서울대병원에서 26일 오전 9시 발인제를 가진 뒤 경복궁 앞뜰에서 전·현직 대통령과 국회 의장, 대법원장, 정당대표 등 각계 인

사 2천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영결식을 치를 예정이라고 25일 밝혔다. 최 전 대통령은 특정 종교를 갖지 않았지만 정부와 종교협의회의와 조율을 거쳐 불교-기독교-천주교 순으로 의식을 진행키로 했다. 일반 시민도 X선 검색대를 통과하면 영결식장으로 자유롭게 들어갈 수 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社告

'월요광장' 필진 바뀝니다

광주일보 대표 칼럼 '월요광장'의 필진이 오는 30일부터 새 얼굴로 바뀝니다.

각계 저명인사로 구성된 새 필진은 전문지식과 해안으로 우리 사회 전반의 문제를 깊이 있게 살펴보고 대안을 제시할 것입니다. 4명의 필진은 앞으로 6개월 동안 정치·경제·사회·역사·여성분야는 물론 광주·전남지역 발전 방향 등 국내·외 관심사에 대해 심도있는 필치로 독자 여러분에게 다가갈 것입니다.

'월요광장' 애독자 여러분의 변함없는 성원을 바랍니다.



전지용 교수 김화중 회장 손용업 교수 민경한 변호사

◇전지용(全智勇) 조선대 사학과 교수
▲강원 강릉 출신 ▲고려대 졸업, 고려대 대학원 문학석사, 전남대 대학원 문학박사 ▲미국 인디애나대 객원교수 ▲한국서양사학회 이사 ▲한국역사학연구회 이사 ▲조선대 인문학연구소장 ▲조선대 박물관장

◇김화중(金花中) 한국여성단체협의회 회장
▲충남 논산 출신 ▲서울대 졸업, 서울대 보건대학원 석사, 미국 콜롬비아대학원 교육학 석사, 서울대 보건대학원 보건학 박사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 ▲대한간호협회 중앙회 회장 ▲제 16대 국회의원 ▲보건복지부 장관

◇손용업(孫龍燁) 전남대 경제학부 교수
▲전북 진안 출신 ▲서울대 졸업, 미국 텍사스 테크대 경제학 석사, 미국 퍼듀대 경제학 박사 ▲한국 농촌경제연구원 연구원 ▲중국 후난대 교환교수 ▲한국자동차산업학회 수석부회장 ▲전남대 지역개발연구소장

◇민경한(閔景翰) 변호사
▲전남 화순 출신 ▲성균관대 졸업, 미국 워싱턴대 로-스쿨 객원연구원, 전남대 법과대학원 수료 ▲제 29회 사법시험 합격 ▲광주지방변호사회 제1부회장 ▲전남도 공무원인사위원회 부위원장 ▲민변 사법위원장

光州日報社

건강100세를 실현하는
ILDONG 일동제약

불안하세요, 초조하세요?

330년 북경동인당의 명품으로 진정작용이 뛰어납니다 동인우황청심환-비

• 중국을 대표하여 330년 역사를 자랑하는 북경동인당의 제품입니다
• 청심안神之效를 위하여 효과가 있습니다
• 소환 금(金)과 비(非)는 휴대와 복용이 간편합니다
• 맛과 향이 우수하고 복용 후에도 입안이 즐겁습니다
• 국내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출국을 인정합니다

더만 유익에 효과적입니다

- 뇌졸중 • 고혈압 • 심계항진 • 청심안神之效
- 3차 안질환 • 자율신경실조증 • 인신-물신

※ 가까운 약국에서 구입하세요

1동인우황청심환-비-는 중추 혈부와 후두나과 식과혈의 허기를 받은 제품입니다

문의: 080-022-1010